

애착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심리적 특성

전 효 정(동아대 전임강사)

최근 인터넷은 청소년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환경으로 인터넷 사용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부적응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애착유형이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애착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중독경향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조사하여 인터넷 중독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애착도구(전효정, 1994), 인터넷 중독검사(Young, 1996), 외로움과 자존감 등 관련 도구들과 인구통계학적 질문이 포함되었다. 애착유형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중독경향에 따라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고, 나아가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빈도분석, 평균, 분산분석, t-test,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애착유형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회피형이 가장 높고, 다음 불안-저항형 집단이며, 안정형 애착유형자들은 인터넷 중독경향이 가장 낮았다. 회피적 애착유형 사용자일수록 인터넷 중독경향이 높게 나타났다(.283, $p < .01$). 인터넷 비중독 집단과 중독 집단으로 인터넷 중독 성향에 따라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독집단이 외로움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Stepwise Regression 분석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는 애착유형, 일시적 외로움, 그리고 자존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한 경로분석 결과에 의하면, 애착이 현재 대학생의 일시적 외로움과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다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주었다. 즉, 애착유형이 외로움과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